

# “개성 영통사 옛모습 찾는다”

## 평양방송 “복원중... 조사·발굴 병행”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출가·입적한 개성 영통사(옛 경기도 개풍군 용흥리)가 1065년 당시의 모습을 되찾고 있다. 북한은 14일 평양방송을 통해 “우리 당의 민족문화유산 보존 정책에 의해 새롭게 복원되고 있는 영통사가 머지않아 자기의 옛 모습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3월 14일자)

복원작업은 지난 99년 하반기 북한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평양건설건축대학 건축연구소의 복원설계도면을 완성함에 따라 시작됐다. 영통사 복원설계도면에 따르면 의천 스님이 출가하던 해인 1065년의 건축양식을 기본으로 4만여 평방미터의 부지에 주전 8동, 회랑, 비각, 3채의 승방, 의천 스님의 부도 등이 복원된다. 총 건축면적은 2천 8백여 평방미터이다.

지난해 9월 북한 사회과학원 초청으로 방북, 영통사지를 비롯한 개성 일대의 유

적을 둘러본 김동현(동국대) 교수도 “북한은 ‘영통사복원추진위원회’ 결성하고 기초 공사를 하고 있었다”고 전한 바 있다. 이번 복원 작업을 위해 북한은 이미 98년 일본의 대정대학과 함께 2년 간 4차례에 걸쳐 영통사지에 대한 공동발굴 조사 실시하고, 1천여 년 전의 영통사의 사적을 밝혔다.

평양방송은 이어 “복원 작업과 함께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의 조사·발굴 작업이 병행되고 있다”고 밝혔는데, 조사·발굴 작업을 통해 소형 돌탑과 불상 조각, 각종 구슬, 고려자기, 도기, 금속구 및 등 고려시대 유물들이 많이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 이 방송은 전했다.

한편 4박 5일 간의 방북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은 14일 “남북연계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개성과 고성 내금강 등을 관광자유특구로 지정키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힘에 따



◀북한의 개성시 용흥리 오관산에 있는 영통사지 모습.

라, 북한이 복원하고 있는 영통사를 볼 수 있을지에 교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화관광부 관광정책과에 따르면 개성이 관광자유특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도로, 철도 연결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러나 북한도 법제화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고, 개성과 박연폭포를 연결하

는 도로가 건설된다면 접에서 관광을 통한 영통사 참배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관광자유특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남·북한 장관급 회담을 거쳐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때 합의서를 작성한다.

오종욱·권형진 기자 (gobaoou@buddhapia.com)

## 학술기행 中 산동반도의 한국불교

#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경치

## 태산의 도교와 불교

신근재 (동국대 일본학연구소 교수)

태산은 중국의 5대 명산이기도 하지만 아시아권에서도 단연 첫째로 손꼽히는 명산이다. 5대 명산이란 호남성의 향산(衡山)을 남악, 하남성의 송산(嵩山)을 중악, 협서성의 화산(華山)을 서악, 산서성의 향산(恒山)을 북악이라 이르고, 여기에 태산을 덧붙인다.

## 진시황·한무제 등 봉선식의

태산이 자리한 산동성은 중국문화가 꽃피던 춘추전국시대에는 노나라, 제나라가 위치했던 곳이다. 공자의 고향인 곡부가 거기에 있으며, 세계 3대 문명 발생지의 하나인 황하가 이 지역을 도도히 흐른다. 옛 글에 “제(齊)의 문화가 한 번 변하면 노(魯)에 가깝고, 노의 문화가 한 번 변하면 도(道)에 이른다”고 할 정도로 중국문화의 산실이었다. 그러한 산동 지역에는 산이 그리 높지 않고, 더구나 높은 산이 별로 없으니 태산이 유명해질 수밖에 없다. 한자문화권에 속하는 한국이나 일본에 있어서도 태산은 그 의미가 남다른 것이다.

태산으로 가기 위해 산기슭에서 케이블카로 남천문(南天門)을 향하면서도 어떻게 하여 이 도교(道敎)의 영산(靈山)에 불교가 들어올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다. 태산은 중국 고대의 역대 황제가 제후들을 모아놓고 봉선(封禪)의식을 행한 땅으로도 유명하다. 진시황을 비롯하여 한무제, 당고종과 희천무후, 후한의 광무제, 위나라의 명제, 송나라의 진종에 이르기까지 72인의 황제가 봉선 의식을 거행한 곳이다. 봉선(封禪)이란 황제가 즉위하였을 때 하늘의 명을 받아서 중국을 통치한다는 정당성을 드러내기 위해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내는 의식으로, 태안 시기에 있는 태묘(稷廟)의 행궁에서 태산 정상까지의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남천문에서 따스한 겨울 햇살을 받으며 가파른 들레단을 올라서면 벽사사에 이른다. 벽사사에서 왼쪽으로 오르는 도중 깎아지른 벽에 많은 글이 새겨져 있는 것이 시야에 들어온다. 이 속에 기태산명지비(紀泰山銘之碑)가 있다. 이 비가 바로 양귀비와의 로맨스로 유명한 현종이 봉선 의식을 거행했을 때 세운 비다.



다시 계단을 오르면 태산의 정상 옥황정에 이른다. 일명, 천주봉이라고도 불리지는 이곳이 바로 그 이름도 거창한 태산의 정상이다. 맑게 개인 하늘은 겨울날씨 같지 않게 쾌적하기 그지없다. 이곳에는 태산에서 추앙되고 있는 여러 신들 가운데 가장 높은 신인 옥황대제가 모셔져 있는 옥황전이 위치하고 있다. 옥황전을 나오면 모자를 쓴 것 같이 서 있는 무자비가 있다. 표면에 아무 것도 적혀 있지 않아서 더 유명하다.

고구려 광개토태왕 비를 연상케 하는 이 거대한 비는 2100여 년 전 한나라 무제 때 세워졌다. 이 비에 글자를 새기지 않는 이유는, 이곳에서 바라보는 전망이 너무 뛰어나서 감히 필설로 형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중국적이고 도가(道家)다



◀태산 자락에 앉은 보조사 탐림.

운 표현이다. 무자비 양쪽에 법당의 형식보살처럼 고즈넉이 서 있는 아담한 비석에 새겨져 있는 괘팔약의 글이 나그네의 눈길을 끌게 한다. 이곳은 많은 문인과 묵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 “태산은 죽은사람 모이는 산”

공자는 “태산에 으르니 천하는 어찌도 그리 작은가”라고 하였고, 두보는 “태산의 정상에서 바라보니, 주위의 산은 작은 것이다”라는 글귀를 여기서 남겼다.

도가에서는 태산의 산신(山神) 태산부군이 사람의 수명과 복록(福祿)을 관장한다고 믿고 있으며, 이 태산부군의 딸 벽하원군을 모신 옥황묘에는 3월에만 전국에서 수십만의 참배객들이 모여든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도교(道敎)와는 달리 태산을 죽은 사람이 모이는 산으로 여기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옥에 대한 것을 태산이라고 부를 때도 있으며, 태산의 산신인 태산부군을 열라대왕의 서기(書記), 또는 지옥의 한 왕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 불교장례문화연구회 발족

### 매년 장례의식세미나 자원봉사단 상시운영도

불교 장례 문화를 연구하고 무료 장례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한 ‘불교장례문화연구회’(회장 이덕진)가 출범했다.

13일 동국대 문화관 그림실에서 병진(장안사 주지), 보명(여래사 주지) 스님 등과 동국대 불교대학원 장례문화학과 학생

들이 모인 가운데 창립된 연구회는 장례 의식을 통해 불교가 일반인의 삶에 가까이 다가서는 데 한 몫을 담당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구회는 전통적인 불교 장례 의식을 연구하고, 매년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이 분야에 대한 학술적인 토대를 다져 나갈 예정이다. 또한 연구회는 자원봉사단을 상시 운영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 장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지난달 28일 개설한 연구회 홈페이지(blog)를 통해 불교 장례의 특징과 절차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일반인들을 위한 상담실도 운영해 바람직한 장례문화 정착에 앞장설 계획이다.

초대 회장을 맡은 이덕진(고려대 강사) 씨는 “불교장례문화연구회는 불교 장례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종욱 기자



◀13일 오후 4시 동국대 문화관 그림실에서 열린 ‘불교장례문화연구회’ 창립 총회 모습.

## ‘강원 매장문화재연구소’ 생긴다

강원도 불교·선사유적의 조사와 발굴을 전담할 매장문화재연구소가 생긴다. 강원문화재단은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고 ‘강원매장문화재연구소’의 개설 계획을 밝혔다.

그 동안 강원도 내에서는 양구 상무릉리, 양양 오산리, 강릉 안인리, 고성 문암리, 홍천 하화계리 등 불교·선사 유적지가 산재한 만큼 전문연구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군사보호구역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역의 불교

유적은 81곳으로 파악됐으며, 이중 폐사지는 49곳으로 가장 많았다. 강원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타 시도에는 이미 매장문화재 연구소가 운영되고 있다.

강원문화재연구소는 3월 초 재단 법인 등록을 마치고 상반기 중에 문화재청의 지정공고를 받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강원문화재단의 관계자는 “학계와 연계한 지역문화재 연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 문화재단 신

### 강화 적석사 사적비 시유형문화재 지정

인천시는 14일 문화재위원회를 열고 강화군 적석사 사적비를 시유형문화재로 지정키로 결정했다. 적석사 사적비는 조선 중종 40년(1714)에 세워진 것으로 조선 중기 명필인 백하 운운 선생이 글씨를 썼다. 절의 창건 내용과 중수기록은 불교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시관계자는 밝혔다.

### 전국 문화재 안전점검

문화재청은 해빙기를 맞아 국가 및 시도 지정문화재, 문화유적, 향토문화

재 등 전국 모든 문화재에 대해 일제 안전 점검을 30일까지 실시한다. 특히 불철 건조한 날씨로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점을 감안, 산불발생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지역 주민 협조체계 유지와 방화시설의 작동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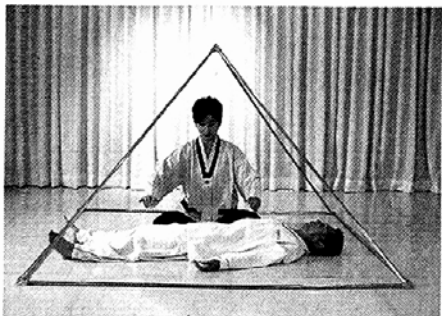
### 쌍계사 대웅전 등 보수

문화재청은 4월부터 원주 송광사, 하동 쌍계사, 창녕 관동사 등 3개 사찰의 대웅전 보수 공사에 들어간다. 원주 송광사 대웅전은 지난 해 안전점검에서 모서리 기둥이 흔들리면서 건물전체가 뒤집히고 내부 기둥이 휘는 등 구조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음이 확인돼 전체를 해체하여 보수할 계획이다. 하동 쌍계사와 창녕 관동사 대웅전은 지붕을 해체하여 기와 및 부속재를 교체한다.

## 기공·힐링·명상·자연치유센터 다클리닉

영혼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삶의 의미는? 삶의 목적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당신의 내면의 소리, 영혼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당신의 의문은 풀리지 않을것입니다. 몸, 마음, 영혼의 평화와 영적인 각성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는 최고의 상담가에게 전생, 현생의 의미와 목적을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삶이 바뀔니다. 당신 인생의 주인이 되십시오.



### 프로그램 안내

- ① 리딩(Reading)요법: 전문가운래가 상담자의 기공과 영혼의 과정 감지하여 상담자의 깊은 내면의 소리를 들려줌으로써 각성.
- ② 전생회상요법: 전생회상으로 몸과 마음의 평화와 의식의 확대 인간관계 해결등, 많은 문제 해결과 영적인 성장을 이룰수 있습니다.

- ③ 힐링(Healing): 마치고 울체 되어 있는 기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자연치유력을 극대화
- ④ 영능력개발: 자신의 영적인 잠재력을 개발하여 초감각 개발 및 힐링에너지개발.
- ⑤ 치유기공: 활기공으로 건강하고 조화로운 삶을 영위
- ⑥ 소명수련: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깨닫게하는과정

강남센터: (02)3218-7611 여의도센터: (02)786-2333  
광주센터: (062)366-1533  
홈페이지주소 http://www.dahnclinic.co.kr  
(원장님과 직접 상담가능)

## “불기건강비법 신비의효능”



### [마·기·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뵈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밑 불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삼시다. 프로에서 불기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회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한재를 탕재로 하여(한박스 60포)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 이 효능은(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허머리를 걷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동통,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게 좋다.
- 셋째, 중풍에 특효이며 풍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여 피로를 제거하여 건강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과 당뇨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숙취를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정배리 463번지 중미산 불심정사 전화번호 : (031) 771-1571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불기의 비법이 있습니다. (016) 222-7701  
보시금은 불심정사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정감 대 진 입장

##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약사여태원 거룡 범주스님의  
신식 감정콩  
“金檀花”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뼉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러라니까”

“신식 감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중재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줄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정소, 열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① 상담문의 ☎ (02) 3437-8282 ①